

# 21세기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적 결혼관 : 이쉬야웨(יֵשׁוּעַ)와 이사야웨(יִשְׂרָאֵל)를 지향하는 궁극적 존재의 회복으로서 결혼

조 명 기 교수  
(Ph.D., 백석대학교)

## 국문초록

21세기 현대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들을 예를 들면, 이념적으로는 주된 이념 없이 혼란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을 통한 실용주의, 관습적으로는 유교의 잔재아래 형성된 남성중심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인 가치관, 경제적으로는 서구 자본주의에 기초한 경제 성장, 문화적으로는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만들어진 과장적인 한류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교육, 직업, 삶, 가치관, 세계관들이 만들어졌으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제제일주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만나면서 이기적 사유와 집단적 이기주의가 사회 보편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결혼의 가치 역시 경제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며 그 효용성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지며 결혼이 가진 거룩함과 인격과 신비로움을 파괴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계승하는 사회적인 역할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참모습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 인격을 완성시키며 이렇게 완성된 인격적인 가치아래 본질적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제공해주는 자기완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결혼의 가치는 타종교에서 말하고 있듯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결혼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가 윤리와 도덕의 부재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오히려 근본적인 삶의 가치와 방향의 부재, 그리고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은 자본주의 사회에 만들어지고 있는 또 다른 화려한 삶의 변화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경제적이며 문화적으로 이루어가는 현실도 아니다. 결혼은 이 사회

를 지탱해주는 힘이며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강력한 심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아래 성서적인 분석을 거쳐 제공된 참된 결혼관은 분명 이 사회의 근본적인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의 가치는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 속에 성서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 줌으로서 사회를 회복하고 치유해 나아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회복과 존재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참된 결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결혼의 모습들, 권위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억압적인 현상들을 치유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결혼, 유교, 한국사회, 구약, 모세오경.

## I. 여는 글

현대의 한국사회를 있게 한 중요한 경험이라 하면, 제국주의의 마지막 지점에 다가온 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타율적 해방의 과정, 냉전시대의 희생양으로서의 남북분단, 급격한 서구 자본주의에 기초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가속화된 산업화 속에 성장한 기형적 경제구조, 정치 분열로 인하여 촉발된 사상분열에 기초한 국가적 통치이념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험위에서 한국사회는 생존을 위한 과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이 과정에서 교육, 소득, 직업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갑작스럽게 커진 경제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질적 가치보다는 삶의 양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독특한 사회구조를 낳게 되었고, 경제적 가치가 개인의 삶의 목표나 지향점까지 통제하는 독특한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적 물질주의가 보편화하게 되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역시 자기 정체성, 자아실현, 인격 함양이라는 주제보다는 경제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어 왔고,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목적은 안정되게 경제적인 가치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경제 구조는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들었으며<sup>2)</sup>, 사회의 기초 단위인 결혼과 가정의 구조에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주었는데, 예를 들어 유교 중심의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유교의 이념중의 하나인 효 위에 기초한 구조적인 가족 관계성이 개인주의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약화되어 갔으며<sup>3)</sup>,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인한 가부장 제도의 대안부재는 이혼을 상승이나 가정 파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결론적으로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돈의 문제는 기본적인 인격 단위의 부재, 유교의 붕괴에 따른 대안적 사회질서 부재, 그리고 삶과 만나는 방법론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의 기초 단위인 결혼과 가정의 붕괴에서 그 모든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그렇기 때문에 본 논고는 한국사회가 가진 혼돈을 결혼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같이해 온 한국 기독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인격과 대안적 가치관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적 결혼을 그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치관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회의 비인격적인 현상들에 대한 성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국사회의 주도적 가치관 부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결혼과 가정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하되 이러한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독교적 관점, 구체적으로는 성서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비인격적 현상들은 대부분 사회의 기초 단위인 결혼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가정의 인격성의 부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성서가 말하는 결혼의 정의인 평범한 남자인 이쉬(יִשְׂרָאֵל)와 평범한 여자인 이샤(יִשְׂרָאֵל)가 서로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야웨의 사람으로서 남편(이쉬야웨, אִישׁ יְהוָה)과 아내(이샤야웨, אִשְׁת׃ יְהוָה)로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되, 특히 인간회복과 존재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안으로 볼 것이다. 즉 이러한 성서적 결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결혼의 모습들, 권위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억압적인 현상

들을 치유하고<sup>6)</sup>,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비인격적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펴는 글

### 1. 성서에서 말하는 결혼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결혼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에 어떤 대안을 찾아 제시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라는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매트릭스 안에 위치한 기독교는 한국 사회가 가진 유교적이며 서구 자본주의에 기초한 불완전한 근대화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러한 이념에 위치한 불안한 한국사회의 결혼관에 성서에 기초한 합리적이며 인격적인 자아의 완성을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가치로 삼아 건전한 결혼관을 세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성서는 결혼과 성의 관계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혼의 존재론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 개방풍조와 더불어 불고 있는 결혼의 존재감 상실은 현대 한국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광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의 인격결합과 성적 자유로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우리는 먼저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일부분으로, 태생적으로 완전하며 특성적으로 남녀가 개성적으로 공유하는 창조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라 보았다.<sup>7)</sup>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의 연장선에서 결혼이 다루어져야 하며 이 속에서 개인의 성은 인격적으로 서로 상호 존재적 의미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sup>8)</sup> 결혼의 순결함의 파괴는 여러 사회적 요인, 인격적 요인, 문화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성의 타락 및 파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중심의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성이 사회적 개방과 보편적 선택의 연장선에서 개인의 성이 존재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타락, 파괴, 비인격적 성적 결합 등이 결혼 이전과 이후, 안과 밖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존재의 근원과의 단절이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의 파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자기 파괴적 상실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것들 중, 인격적인 측면에서 자아적 완성을 이루는 소중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sup>9)</sup>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성을 통해서 인격적 완성과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결혼이라는 신적인 행위 및 기구를 통해서 이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결혼과 성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실현하는 거대한 신적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함부로,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제도인 결혼을 통하지 않고 실현하려 해서 안 된다.

성경에 나타난 성에 기초한 결혼은 분명 거룩이라는 신적인 성품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그 실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sup>10)</sup>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의미와 가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는데 특히 결혼을 통해서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공동체적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두 개의 성을 허락하신 것이며, 이 가운데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존재의 궤도를 순항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 그리고 완성을 향한 상호 의존적 경향성에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한다. 결혼은 하나님의 실천적 의지이며 가정은 하나님의 결과적 열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결혼과 이를 통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것이며<sup>11)</sup>,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파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신적인 규례인 것이다.

둘째로 결혼과 인격간의 관계성의 문제이다. 성서가 가지는 결혼에 대한 인식은 거룩과 경외이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섬기듯 하여야 한다는 규례를 기본적인 인격적 가치 속에 부여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남편이자 아

내로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가져야 할 가치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sup>12)</sup> 결혼은 일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남편이자 아내로 새로운 인격적인 확장을 이루는 거대한 탈피의 과정이다. 이러한 탈피를 통해서 개별적인 인간은 공동체적인 의존적 인간으로 자아인식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참된 존재감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단순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자아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거룩한 인간 형성의 과정인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독립된 개인이 또 다른 독립된 개인을 만나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상호 협력적 인격완성이라는 존재론적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결혼에 성서는 거룩과 경외를 강조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규례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삶 아래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규례로서, 관계성을 중시여기는 성서적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 가지는 부부간의 관계성,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성 등이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성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참된 결혼과 가정의 의미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13)</sup>

결혼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 참된 성적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활용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인격과의 만남, 그리고 존재론적 관계성의 만남을 통한 참된 존재로의 거듭남이 성서가 가지는 보편적인 결혼에 대한 이해라 볼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해를 시대별로 고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모세오경에 나타난 결혼관

성서 족장시대에 나타난 외형적인 결혼과 가정은 남성중심의 결혼관과 가정관이 그 주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 기원 전 1700년경)<sup>14)</sup>과 누지(Nuzi, 기원전15세기)의 계약 문서들<sup>15)</sup>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기 이스라엘의 결혼관은 부족 통치, 재산상속, 야

웨 하나님 제의 등을 이끌어 나갈 남성을 중요한 결혼의 덕목으로 두었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초기 이스라엘에서 행한 첩의 제도나 수혼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윤리적 규정과 덕목 아래서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남성은 상당한 사회적 자유를 누리며 결혼과 가정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아내들이나 첩들은 그렇지 못하였다.<sup>16)</sup> 예를 들어 여성은 혼인에 대한 그 어떤 제안이나 의지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여성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혼관은 사회적 구조나 틀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적 기능이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초기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과정은 민족과 부족을 통합시키고 번성시켜 나아가는데 중요한 사회 기능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 가기 위한 상황적 요청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결혼은 신앙적 순수성, 순결함, 그리고 야웨 하나님의 율법적 단일성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중심의 사회와 결혼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 및 보호를 남성의 위치 만큼이나 중요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제정한 법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시한 율법중 결혼과 관련한 법은 레위기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금지 명령은 매우 포괄적이며 공동체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친상간뿐 아니라 친족 간의 결혼금지, 즉 어머니, 계모, 자매, 손녀와 외손녀, 고모, 백숙모, 자부, 형제의 아내 등과의 결혼 금지 등이 중요한 법적 항목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강조점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법령들은 대부분 초기의 유목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다신적 특징, 일부다처적 특징, 타락한 성문화 등등으로부터 야웨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출애굽을 허락한 야웨 하나님의 의도인 평등주의를

지켜 나아가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에서는 분명 남성중심적 특징을 가진 결혼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여성을 비롯한 약자 보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신체 상해에 관한 법은 신체에 가해를 한 자가 그 피해자에게 그 가해진 만큼의 보상을 해주거나 또는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에 의한 보응 응징을 받음으로 과실치사를 방지하고 인체 피해의 회복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으로 여기에는 만인 평등의 사회개혁 정신이 있으며, 이 법은 노예에게까지 적용되었다.

더욱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피임을 받아 범함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살인 행위와 처녀를 범하는 것을 같이 언급함으로써 철저하게 야웨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권위를 존엄하게 지켜 나아가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자보호의 사회적 법규는 보호해야 할 약자에 이민자, 과부, 고아 그리고 채무자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배려가 아닌 “야웨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와 안정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야웨의 법을 통한 평등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역시 결혼과 가정에서 지키고 보호되어야 할 약자로 이스라엘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십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결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 역시 남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법이라 볼 수 있다. 신명기에 한번 등장하는 이혼에 대한 법률이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제도를 남성 중심적 성적 결합의 측면에서 파괴적으로 보게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아내에 대하여 “수치 되는 일” 즉 부정을 발견하거든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내어 이혼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결혼의 파괴나 가정의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법으로 볼 수 있는데<sup>18)</sup>, 왜냐하면 이혼 당한 여인에 대한 지위와 아을

러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여성이 사회 안에서 지켜지도록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왜냐하면 이혼당한 여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아내로서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인격적인 결혼을 통한 자아의 실현을 이루어나가려는 야웨의 법 정신을 지켜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혼한 전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것은 재혼이 성적 방종의 방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sup>20)</sup>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할 가나안은 이미 성적 방종이 그 한계를 넘어 성적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결혼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기관이자 인간 완성의 기구로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순결함을 지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적 덕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원래적인 목적은 남성들의 완악하고 방탕한 모습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볼 수 있다.<sup>21)</sup>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결혼과 관련된 법은 계시로서 주어진 이상적 원리를 적용한 성문법이 아니고 당시의 문화에 의해 결정된 현실 상황에 적용한 실정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예언서에 나타난 결혼관

더욱이 이러한 결혼법의 정신은 개인의 인격적 결합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야웨 하나님과 신앙적 결합을 통한 존재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다. 예언서에 나타나는 결혼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편과 아내의 이상적인 결합에 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결혼이 가진 존재론적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온전한 결합으로써 결혼은 부부와 하나님간의 새로운 결합이라는 보다 큰 종말론적 연합을 목표로 그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의 결합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언서에 등장하는 결혼은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계약(Covenant)에 근거한 철저한 연합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계의 계승 및 전승이라는 관념

에 사로잡혀 남성중심적 출산 강조라는 원초적인 틀을 벗어나 인격적으로 연합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철저히 새로운 야웨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새로운 계약으로 연합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결혼에 대한 상징을 보더라도 사람의 결혼은 야웨 하나님과의 궁극적 결혼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이다.<sup>22)</sup>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한 인간의 삶의 안정과 독거를 염려한 대안적 선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이루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예비적 과정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결혼을 통한 합일의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끌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예언서에 등장하는 결혼의 의미는 야웨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맞이할 사람은 예루살렘뿐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녀의 딸이 되어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로 결혼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연합을 이루어내는 의식이며 과정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3)</sup>

모든 세상의 시간과 역사와 삶의 과정의 전부가 야웨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온전한 결합이라는 주제는 구약에서 읽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결론이라 볼 수 있다. 구약성서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야웨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약과 율법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예식인 결혼을 함부로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서 파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sup>24)</sup> 왜냐하면 구약성서가 바라보는 결혼의 의미는 철저히 야웨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삶의 과정이며 종말론적으로 야웨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거룩한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적인 완성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 3) 복음서가 바라보는 결혼관

신약성서의 복음서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거룩한 결혼을 파기할 합리적이거나 상황적인 선택은 그리 넓지 않다.<sup>25)</sup> 전승사적으로 Q자료에 기초한 마태

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봐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드러난다.<sup>26)</sup> 특히 누가가는 이혼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남성에게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그 당시 시대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남자는 아내에게 모세의 법에 명한대로 이혼서류를 만들어 제시하면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sup>27)</sup> 그러나 문제점은 여성에게 이 이혼법은 적용되지 않는 남성 중심의 법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태는 이러한 누가의 기록에 “음행한 연고없이”라는 단서조항을 첨가함으로써 이혼의 합법적 이유를 제시하려고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마태 공동체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라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이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이혼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Q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아무런 예외 선택 규정을 두지 않고 금기시하였기 때문에 그의 견해에 따라 분명 이혼이라는 선택은 쉽게 해서 안 되는 금기시된 선택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28)</sup>

마가복음 10:1-12	마태복음 19:1-9
<p>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 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p> <p>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यो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p>	<p>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p>

위의 본문 중 마가복음 10, 1-12은 구조적으로 유대교 랍비니즘이 가진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논쟁적인 구조를 통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랍비식 대화체의 문학적 특징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 10:1-12	
2절	대적자들의 요청
3-9절	대적자들의 요청에 대한 랍비식 답변
10절	지지자들의 보충적 요청
11-12절	지지자들을 위한 부연적 설명

마가복음의 이러한 일화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편집자적인 흔적이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대적자들의 요청과 이에 대한 랍비식 답변과 지지자들의 보충적 요청과 이에 대한 답변이 독립적인 전승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편집적인 과정을 거쳐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읽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9)</sup>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의 틀과 구조에 기초하여 완성된 일화이기 때문에 그 원론적 중요성은 마가에게 뿐 아니라 그의 공동체, 그리고 현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법에 근거한 이혼규정을 오히려 결혼을 보다 온전히 지키고 영속적인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을 위한 규례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동 폐기하였다.<sup>30)</sup>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6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보충이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사건을 남자가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규례와 연결시킴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된 이상 결코 분리되어 분열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합일으로써 서로 갈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통한 분열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만들어진 마태복음은 마가와는 다른 이혼에 대한 규례를 제시한다.<sup>31)</sup>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혼증서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이혼을 제기하자 예수님은 우선 창 1, 27절과 2, 24절을 인용하면서 그 대답을 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의도를 논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세의 이혼증서의 목적은 욕망과 반하나님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관습에 몰들어 파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분명 마가는 성서가 말하는 의도에 근거하여 논쟁을 풀어나가 마태는 철저하게 성서를 인용함으로써 논증을 이끌어 가는데, 그 이유는 마태가 율법학자들의 논증방식을 채택하여 예수님의 이혼논쟁을 풀어나가려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sup>32)</sup> 마태와 마가의 다른 점, 즉 다른 편집적 관점은 율법학자들의 논증적 방식을 인용했는가 아니면 랍비식 답변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는 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마가복음 10,11-12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마가는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를 이혼법의 한 예로 들고 있다. 이 이혼제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법은 유대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로마법으로서 유대사회에서 여자는 절대로 이혼법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 아내가 남편을 내보내는 이혼 규정이라는 로마의 법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가는 자신의 공동체의 상황 속에 예수님의 어록을 적용하기 위해서 과정적 편집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마가복음 10:1-12절의 자료는 복음서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로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마태와 누가에는 없는 독특한 마가만의 또 하나의 이혼에 대한 전승자료가 등장한다. 마태의 것은 마가의 것을 자신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변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본문을 분석해 보면 예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비록 이러한 마가의 기록 자체도 과연 예수님의 어록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기록인지 아니면 초대교회의 첨가인지는 보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는 8절과 9절의 말씀은 분명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어록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록 뒤에 Q자료에서 빌려 온 것으로 보이는 11, 12절, 즉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यो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의 첨가이다. 예수님의 논쟁어록에 속하는 이 본문의 핵심은 이혼에 반대하는 예수님과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예수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복음서 저자들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파기하도록 유도질문을 한 것이라면 분명 예수님 당시 남성에게 해당되었던 합법적인 이혼 규례와 모세의 규례를 교묘하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마가의 입을 빌어 초대교회의 갈등을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 해답을 듣기 위해서 했던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역사적인 실체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예수님의 어록에서 있던 초대교회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목양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10, 1-12의 일화에 마태는 “κατα πασαν αιτιαν(카타 파산 아이티안),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첨가구를 삽입함으로써 9절에서 자신이 의도한 예외규정인 “μη ἐπι πορνεια(메 에피 포르네이아),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예외 규정에 대한 합법적인 규례를 얻어내기 위한 공동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포르네이아(πορνεια)를 모세 율법이 금지한 근친결혼이나 혼전 성행위로 본다면 많은 논쟁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간음’을 뜻하는 ‘모이케이아(μοιχεια)’와 ‘음란’을 의미하는 ‘포르네이아(πορνεια)’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3)</sup> 그러나 이 둘의 공통된 의미는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포르네이아(πορνεια)의 행위적 규정을 비합법적 일체의 성

행위의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근친상간<sup>34)</sup>과 창녀와의 매춘<sup>35)</sup>과 관련하여 이 단어-포르네이아(*πορνεία*)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합법적 성행위인 혼전 성적 부정과 동성애,<sup>36)</sup> 그리고 수간<sup>37)</sup>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태가 말하는 이혼의 예외규정은 분명 포르네이아(*πορνεία*)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마태 자신의 공동체에서 이혼이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적인 요청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간음을 중죄로 여기는 유대 공동체의 율법적 규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으려 시도함으로써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혼이 예수님에 의해서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마태 역시 거부할 수 없는 규례였기 때문에 그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공동체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되 마가와는 달리 최소한의 예외 규정을 두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적 변형은 존재하나 이혼금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져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금지의 명령의 근거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명령은 인간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과정적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약자보호를 위한 법으로서의 결혼관

결혼에 대한 이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sup>38)</sup>라는 창세기 구절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sup>39)</sup>과 바울<sup>40)</sup>도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성경에서 중요한 율법적 덕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바사르 에하드(*באשר אחד*)”, “한 몸”이라는 용어는 실제적인 하나의 육체를 일컫는 말이다. 결혼을 통하여 인간은 남녀 간에 온전한 합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 “바사르 에하드”, 즉 “한 몸”은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

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합일을 이루는 보다 철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한다.<sup>41)</sup> 즉 일부일처에 기초한 온전한 연합은 불가분리성과 평등성을 기초로 단순한 자아를 사회적 자아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sup>42)</sup>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수리적 계산에 의지한 동등한 양적, 질적 통합이 아니다. 인격 대 인격이 거룩한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상호 보충적인 합일의 과정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및 복종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기능적인 측면의 질서일 뿐이지 인간 존엄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 및 권위의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창조 질서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거룩한 질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권위의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룩한 기관에 필요한 창조적 질서를 부여한 것이라는 점이다. 결혼이라는 거룩한 기관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각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서로 상호 순응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결혼이 예수님 시대를 전후하여 악용되며 거룩한 결혼을 붕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철저하게 이혼이라는 제도적인 틀을 악용한 불법적 행위의 파괴적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גִּבּוֹר טִיָּבָה, 에르바트 다바르)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sup>43)</sup>

이 구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완악함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sup>44)</sup> 구약에 등장하는 ‘이혼증서’는 남자를 위한 이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남성에게 이혼을 당한 여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들의 재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사회적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온 이혼법은 일반적으로 구약 신명기 24:1~4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혼법은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따라서 이 구절들은 보통 '이혼법'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율법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신명기의 이혼법이라 알려진 이 본문은 철저하게 이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혼증서라는 것을 통해서만 이혼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혼법에 등장하는 이혼증서는 제사장과 같은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았는데, 이러한 효력이 있는 이혼 증서를 이혼의 필수 요소로 제도화시킨 것은 일시적이며 감정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혼 서류를 만드는 동안 제사장에 의해서 최소한의 화해의 시도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혼보다는 율법에 근거한 결혼생활의 유지를 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성에게 주도적인 법이었던 이혼의 규정은 여성의 행위에만 이혼의 가능성을 두었는데, 특히 “수치되는 일”이라는 “עֲרֻת דַּבָּר” (에르바트 다바르)라는 자의적 규례를 여성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이혼의 주체인 남성에게 의해서 여성이 억압적으로 통제되는 현상을 낳았고, 실제로 용어의 구체적인 범위를 두고 유대사회 안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에르바트 다바르”를 부정하며 음란한 행위를 일컫는 말이라 해석하였으며, 힐렐 학파는 음식을 못하는 것, 부엌에서 밀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 남편으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여자에게 마음을 가게 한 것 등,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체의 일이라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에게만 정조의무가 강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명기 2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치 되는 일’의 일차적인 의미는 여자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의 권리를 남성에게 주고 여성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결혼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였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비판의 대상이 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부분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여성 억압적 해석에 대한 경고였다. 왜냐하면 우선 여성이 간음으로 인하여 수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레위기 20:10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기 때문이다.<sup>46)</sup> 만일 이 구절이 현대 결혼 윤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 역시 이 “에르바트 다바르”라는 단어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내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존 머레이(John Murray)의 주장처럼 이 에르바트 다바르를 여성의 부도덕한 행위나 음란한 행위로 보거나, 아니면 아벨 아이잭슨의 주장처럼 몸을 수치스럽게 드러내는 행위로 모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어구가 가진 개념적 범위를 절대적인 영역과 유동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여 예수님의 원의도를 충분히 드러내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sup>47)</sup> 결론적으로 그 어떤 에르바트 다바르의 과정에서든 흔들릴 수 없는 성서에서 언급되는 결혼의 핵심은 “바사르 에하드(בַּסָּר וְאֶחָד)”라는 “한 몸”의 규례이며, 이 규례는 정결한 결혼의 요청인 하나님의 요구와 배타적 독점성으로 이루어진 거룩함이 기초가 된 경건한 삶의 규례라고 볼 수 있다.<sup>48)</sup> 그리고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이혼의 경우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증서를 만들어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거룩한 결혼의 규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내어버려진 존재로 사회에 방치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여 그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sup>49)</sup>

위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혼서류가 작성되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아내가 일반적으로 남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 이혼증서는 남편이 가진 아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증비서류가 되어

이 서류를 가진 여성은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시도하는 전남편으로부터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사회에서 이 이혼증서는 분명 남성에게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약자보호의 틀에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성이 함부로 이혼을 시도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허위로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였을 경우<sup>50)</sup>와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범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sup>51)</sup> 이러한 규제는 신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χωριζω, 코리조)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αφιημι, 아피에미)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αφιημι, 아피에미)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δουλω, 둘로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sup>52)</sup>

위의 바울의 이야기 중 '갈리다'는 의미의 코리조(χωριζω)는 문맥을 살펴볼 때 분명 이혼을 의미하는 말이다.<sup>53)</sup> 이방인을 선교한 바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 역시 이혼에 있어서 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5절의 "구속받을 것이 없다"는 "둘로오(δουλω)"는 재혼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

는 구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3절의 아피에미(*αφιημι*, 버리다)는 아내나 남편을 내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피에미”가 일어난 경우에 이혼이나 결과론적 재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결혼과 결혼의 결과로서 가정의 의미는 인격과 인격의 결합을 통한 완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혼을 통한 완성의 파괴는 다시금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완성이며 이것을 통해서 개인은 하나님과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나누어 가진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 III. 닫는 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 및 문제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의 인격의 문제이고 유교적인 잔재 위에서 이를 벗어나려는 여성과 이를 지키려는 남성과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말하는 결혼의 모습들, 즉 경건, 거룩, 인격적 완성, 상호 의존적 인간의 발견 및 상호 합일을 통한 인격의 완성 등의 모습이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창조의 완성으로서 온전함을 가져야할 권리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호 협력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이다. 이러한 의존적 존재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상호 평등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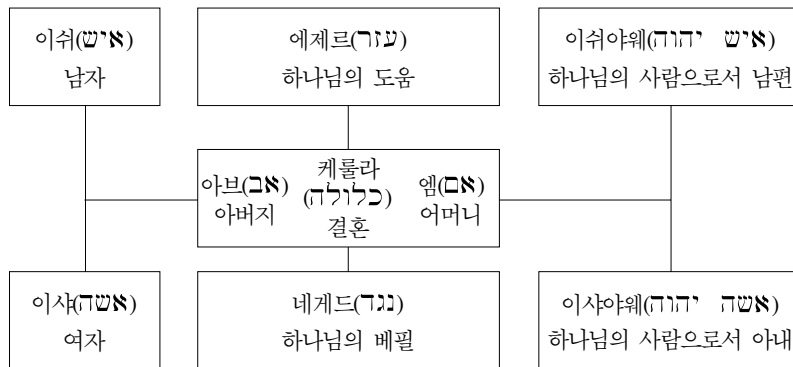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קַנְיָהּ*, 에제르 네게드)을 지으리라 하시니라<sup>54)</sup>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허락하시면서 결혼의 중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 거룩한 예식에서 여자를 에제르 네게드(*קַנְיָהּ*)로 읽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에제르(*קַנְיָהּ*)”라는 “돕는 존재”라는 말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지시하거나 그 도움이 나타날 때 사용되는 말이다. 특히 하나님의 능

력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에제르”에 의한 도움은 모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볼 수 있다.<sup>55)</sup> 그리고 “베필”을 의미하는 “네게드(נֶגֶד)”라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등장하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서로에게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서로를 완성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대한 연합의 조력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습을 드러내는 거룩한 조력자이며 협력자이고 남성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성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와 연합을 통하여 자아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이러한 결혼의 결합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 가진 궁극적인 의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sup>56)</sup> 하나님은 분명 결혼의 파괴를 싫어하시며 원치 않으신다. 결혼의 선택에서부터 완성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금지와 발생한 이혼에 대한 약자보호의 연장선에서 재혼의 가능성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들은 현실과 이상의 균형 잡힌 시각이다. 결혼은 관계성에서 출발한다. 인격적이며 평등한 관계성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합일을 이루고 이러한 합일의 과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은 철저히 하나님과 다시 거룩한 연합을 완성함으로써 자아의 완성뿐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을 이룬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분명 유교적 틀 안에서 유교가 가진 권위주의적이며 남성중심적인 틀 안에서 일방적이며 인격적이지 못한 불균형의 관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틀 안에서 성서가 말하는 인격적이고 평등한 관계 수립을 통한 자아적 연합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공동체적 합일은 분명 우리 사회가 가진 불균형의 결혼관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이나 재혼의 규제 역시 가능성 있는 인간 완성의 현실적인 여지일 뿐

이지 그것이 온전한 하나의 독립적 규례는 아니다.<sup>57)</sup> 분명 결혼의 규례에 부가된 부차적인 규정의 하나일 뿐이다. 더욱이 성서에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이혼한 여성과 결혼을 금지함으로써 이혼이 온전한 관계성의 완성 과 회복을 위해 중요한 하나의 금기시 된 덕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8)</sup> 그 이유에 대해서 야웨 하나님께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요소에 이혼은 분명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지고 있다.<sup>59)</sup>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의 완성 및 회복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야웨 하나님과 같이 공유적으로 맞추어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과정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닥친 결혼의 불안 및 위기는 이러한 인격적인 과정과 완전을 향한 여정의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신분 상승의 수단이나 단순한 삶의 안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이 가진 완성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수단으로서의 결혼은 자연스럽게 권력이나 능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마치 경쟁적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면서 나타난 병폐가 우리 사회를 감싸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된 결혼은 평범한 남자(이쉬)와 여자(이샤)가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이쉬야웨)과 아내(이샤야웨)가 되는 거대한 여정에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쉬(יִשְׁי)가 아브(אָב, 아버지)가 되고 이샤(יִשְׂרָאֵל)가 엠(אִמָּה, 어머니)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야웨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거룩한 결혼의 과정이다. 케를라(קְרָלָה)는 단순한 이쉬와 이샤를 하나님의 이쉬와 이샤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쉬”와 “이샤”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필을 만나 “아브”와 “엠”으로 관계적 발전을 통해 자아적 완성을 시도하고, 다시 “아브”와 “엠”은 하나님과 보다 발전된 관계적 성숙을 통해서 “이쉬야웨”와 “이샤야웨”로 공동체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이 참된 결혼의 의미라 볼 수 있다. 누구나 남자와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확장의 영역을 만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삶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된 남자와 여자로 존재론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온전한 결혼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 Donald A. Hagner, “Matthew 14-28”, *Word Biblical Commentary Series*. Dallas: Word Books, 1995.
- Ezra P. Gould,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Edinburgh: T. & T. Clark, 1975.
- H. Thielicke, *The Ethics of Sex*.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 Jay E. Adams,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0.
- John J. Davis, *Evangelical Ethics: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 Philipsburg NJ: P & R Publishing, 1993.
- L. I. Granberg, “Marriage, Theology of”,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Ed. Walter A. Elwel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 Otto A. Piper, *The Biblical View of Sex and Marriag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 Willoughby C. Allen,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72.
- 김장태. 『한국유교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3.
- 김장태. 『한국유교의 재조명』. 서울: 전망사, 1982.
- 옥선화 · 정민자. 『결혼과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2.
- 정양은. 『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1981.
- 조금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1): 인성론을 중심으로』. 1991.
-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무교, 유교, 불교』. 서울: 사계절, 1998.
- .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 서울: 사계절, 1997.

[ 후주 ]

- 1) 김장태, 『한국유교의 이해』(파주: 한국학술정보, 2003), 220ff; 김장태, 『한국유교의 재조명』(서울: 전망사, 1982), 18f. 87.
- 2) 조금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1): 인성론을 중심으로』(1991), 98.
- 3) 정양은, 『사회심리학』(서울: 범문사, 1981), 298-317.
- 4)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무교, 유교, 불교』(서울: 사계절, 1998), 142.
- 5)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서울: 사계절, 1997), 37.
- 6) 옥선화, 정민자, 『결혼과 가족』(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2), 134.
- 7)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83.
- 8) H. Thielicke, *The Ethics of Sex*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135.
- 9) Otto A. Piper, *The Biblical View of Sex and Marriag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16, 34.
- 10) 창 2:4-24.
- 11) 창 1:28; 창 2:23, 24.
- 12) 골 3:18-23.
- 13) Jay E. Adams,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0), 7-9.
- 14) 함무라비(BC 1810년경-BC1750년경)는 바빌로니아 제1왕조(아모리 왕조)의 제6대 왕으로 기원전 1792년부터 기원전 1750년까지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으로, 메소포타미

아에서 바빌로니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국으로 키운 왕으로 그는 통치보다 그가 만든 법전으로 유명한 왕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크게 입문법, 실정법, 결문법이 그것인데, 이러한 특성은 고대 우르남무법전을 비롯한 고대의 법전전통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법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문법은 이 법전의 서문에 해당하는 법문으로서 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두터운 왕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정법은 이 법전의 본문에 해당하는 법문으로서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정의를 기초로 판결하기 위해 편찬된 282조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결문법은 이 법률을 지키도록 자손을 깨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형문자법전 중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법전은 재판의 공정성, 예외없는 엄격한 구형이 중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혼인과 가족에 관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남성중심적 특성에 기초한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행 선고를 통한 적용보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나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활용되었다.

- 15) 누지문서(Nuzi)는 1925~31년 미국의 고고학 발굴팀에 의하여 발굴되었는데, 후르리(Hurri)어와 아카드(Akkad)어로 쓰여진 수천 매나 되는 점토판문서로 구성된 거대한 자료를 일컫는 말이다. 이 문서 기록하여 남긴 누지는 BC 5세기 경의 아라푸아 왕국의 한 도시로 미탄니왕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후르리인을 옹호하고 있었는데,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 즉 언어어려움났사 회관습 등을 후르리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해준 자료들이다.
- 16) 창 35:22; 대하 11:21.
- 17) 이러한 규례와 관련된 성경으로 20장 22절-23장 19절을 참조하라. 특히 종교적/사회적 법규(출22,18-31)와 정의로운 재판 행정에 관한 법규(출23.1-9)를 참조하라.
- 18) 신 24:1.
- 19) 신 24:1-5.
- 20) 신 24:1-22.
- 21) 마 19:8.
- 22) 호 2:19-20.
- 23) 계 21:2.
- 24) 말 2:16.
- 25) 예수님께서 결혼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다음 부분을 참조하라. 마 5:31-32; 19:1-12; 22:23-33, 막 10:1-12; 12:18-27, 눅 16:18; 20:27-40.
- 26) Ezra P. Gould,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Edinburgh: T. & T. Clark, 1975), 182-186.
- 27) 눅 16:18.
- 28) 마 5:32.
- 29) Ezra P. Gould,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182-183.
- 30) 막 10:5.

- 31) Willoughby C. Allen,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72), 201-204.
- 32) Willoughby C. Allen,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01-203.
- 33) 마 15:19.
- 34) 고전 5:1.
- 35) 고전 6:13.
- 36) 레 18:12; 롬 1:26-28.
- 37) 레 18:23.
- 38) 창 2:24.
- 39) 마 19:5.
- 40) 엡 5:31.
- 41) L. I. Granberg, "Marriage, Theology of",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Ed. Walter A. Elwel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11.
- 42) 갈 3:38; 고전 7:4
- 43) 신 24:1-2.
- 44) 막 10:5.
- 45) Donald A. Hagner, "Matthew 14-28", *Word Biblical Commentary Series* (Dallas: Word Books, 1995), 549.
- 46) 레 20:10.
- 47) John J. Davis, *Evangelical Ethics: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 (Philipsburg NJ: P & R Publishing, 1993), 95.
- 48) 요 8:1-11.
- 49) 출 20:17.
- 50) 신 22:13, 21.
- 51) 신 22:28, 29.
- 52) 고전 7:10-16.
- 53) 고전 7:10-11.
- 54) 창 2:18.
- 55) 시 20:2, 121:1~2, 124:8.
- 56) 말 2:16.
- 57) 신 24:1-4.
- 58) 레 21:7, 14; 겔 44:22.
- 59) 레 21:7.

【 Abstract 】

21C Korea Modern Society and Biblical Marriage  
The Marriage as Becoming The Ultimate Being in Ishi  
YHWH and Ishah YHWH

Myung-ki Cho  
(Ph.D., Baekseok University)

Korea culture has been based on Confucianism, Western Capitalism, Radical Economic Growth, Mammonism and Individualism is built on its ideology, ect. Especially, confucianism is an ancient Chinese way of thought that has spread through much of East Asia. This is often described as a religion in Korea. But most of korea has not a religion of Confucianism. In Korea perhaps Confucianism is a philosophy, social habits, invisible customs controlled most Korean, and perspectives. So the accurate definition of Confucianism is that it is a detailed code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Korean cultures where it is embraced, Confucianism is a practical political and social doctrine. During centuries in Korea, Confucianism has meant a system of education, ceremony and civil administration as first expressed by the old of his villages and his parents. Confucianism was accepted so eagerly and in so strict a form. Also, Korea Marriage Culture is built on its basis. so it has a structure like a male-centrism, a female suppression, and so on. Its teachings have, over time, reign all korean and his habit.

In particular, kinship organization, ideology, ritual and associated behaviour have represented crucial, perhaps dominant, themes in Korean culture have been consist of Korean Marriage. Fundamental ideas about morality and the proper ordering of human relationship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fucian concept of filial duty. This filial duty was extended to the father of his family, this structure was magnified to National structure that king is the father of nation, and Filial Duty in family is a Loyalty for a nation. This pervasive, highly elaborated system of lineages and branch lineages provided the basic structural principle on which most groups in traditional society were organized. Loyalties and obligations is centered in man, husband have generally taken precedence over

other claims, commitments, and woman rights.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profound changes have been taking place in the marriage system, particularly in the leadership of family. So the divorce almost has been led by man. But, i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ity, Marriage is instituted by God. Divorce is not part of God's design, and is never entered into lightly. All divorces are caused by sin. The act of divorce is not a sin.

But divorce with the intention to remarry a specific person is adultery. Christianity says that, the true marriage the normal ishi(ישׂה) and the the normal ishah(שה) is to become a ishi YHWH(יהוה ישׂה) and ishah YHWH(יהוה שה) in the bible. It is that the marriage is to recover Being of God's Image and to complete the personality of the depending being. Marriage never be touched by neo-confucianism, mammonism, the pragmatic options or the easy routes. Marriage must always be led by the light of God's command. The teaching of Scripture (OT and NT) condemns a broken marriage relationship as sinful and against God's perfect will. Our society needs a new an alternative plan, biblical idea, values on christianity to heal the distorted marriage and the view point of marriage.

**Key word:** Marriage, Confucianism, Korea Society, Old Testament, Pentateuch.